

구술자료 상세목록

사업명	미추홀시민기록단 ‘미추홀 송의목공예마을’ 기록				
구술자명	김인규	면담자	허은영		
면담장소	미추홀공예사	면담지원	표기자		
면담 일시	2022년 9월 3일	회차	2	시간	1시간 6분 17초
자료번호	MichuholCA-08-00001551				
구술 개요	<p>송림동에서 45년동안 살았음. 참외전로는 참외전거리에서 파는 과일시장에서 참외가 주 종목이여서 참외전로로 불리게 되었음. 친구 소개로 아내를 만나 29살에 결혼했음. 훈민정음 작품은 청와대 사랑채에서 6개월 시연을 하고 감사장을 받음. 철학은 따로 없고 나무를 사랑하고 애착이 많음. 목공예마을은 후배들 양성을 안 해서 없어질 거 같음. 우리가 쓰는 나무는 대부분 수입. 우리나라 나무는 제재해서 파는 곳이 없음. 목공예거리는 도원동 쪽에 있다가 철길이 복복선 되면서 송의동으로 나오게 되었음. 상감 무늬가 들어간 건 처음에 이태리에서 수입을 했음. 그러다가 직접 했음. 시골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만들고 싶음.</p>				
주요 색인어	<p>송림동, 초등학교, 기술학교, 장남, 공부, 참외전로, 운동, 영화, 전도관, 교회, 봉급, 결혼, 도화, 강화, 나무, 사랑, 전시, 후배들, 손, 명장, 목공예, 박정희, 정부, 지원, 위험, 목공예 센터</p>				
구술 상세목록 내용			시간	관련파일(비공개)	
1. 가족이야기-1			[영상파일] 00:7:11~ 00:7:4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활동기획안 ▷ 구술활용동의서 ▷ 개인정보동의서 ▷ 음성파일 ▷ 녹취문 	
- 어머니는 서울, 아버님은 강화 출생.					
2. 가족이야기-2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송림동 옛 송림침례교회 근처에 45년동안 살았었음. - 재능대학교 있는 곳이 부처산임. 지금은 산을 없애고 학교를 지었음. - 장남이고,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음. - 공부는 잘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부보다 일을 하게 되었음. - 참외전로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동인천 가다 보이는 참외전거리가 과일 시장이었음. 계절마다 참외가 주 종목이여서 참외전거리라 불렀고, 참외전로로 되었음. 					
3. 학창시절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는 송림동에서 답동까지 걸어다녔음. - 초등학교 시절 도원 공설운동장에서 투견대회를 했었음. - 지금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있는 쪽에 도원 극장이라는 곳도 있었음. 			[음성파일] 00:00:01~ 00:05:58		
			00:05:59~ 00:09:45		

4. 전도관 이야기		
- 송림동 집에서 전도관에 세를 사는 분이 있었음. - 전도관을 운영했던 사람이 유명했음.	00:09:46~ 00:13:37	
5. 어린시절 꿈과 목공예 일이 번창했던 시기		
- 어릴 때 돈 별면 목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음.	00:13:38~ 00:16:39	
6. 결혼 시기		
- 서울 명동에 있는 '충무 가구' 에서 운영하는 가구 공장에 다녔을 때, 친구가 아내 사진을 가져왔었음. - 29살에 결혼했음. - 현재 도화역 북측 근처(대화초등학교 쪽)에서 살고 있음.	00:16:40~ 00:20:37	
7. 작품활동과 목공예에 대한 철학		
- 작품에 대한 영감은 하다보면 떠오르는 경우가 있을 때 메모해놓음. - 훈민정음 작품은 청와대 사랑채에서 6개월 시연을 하고 감사장을 받음. - 철학은 따로 없고 나무를 사랑하고 애착이 굉장히 많음.	00:20:38~ 00:24:28	
8. 은퇴 후 계획		
-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은 작게 공예 공원을 하나 만드는 것. 전시장과 작업장을 따로 만드는 것.	00:24:29~ 00:25:47	
9. 비슷한 연배의 송의목공예 마을 동료들 이야기		
- 친구들이 많이 돌아가셨음. 그래서 만날 친구들이 별로 없음.	00:25:48~ 00:29:47	
10. 개인적 건강 상태와 후배 양성의 어려움		
- 목공예마을은 후배들 양성을 안 해서 없어질 거 같음. 3D 업종이어서 배울 사람이 없음. - 위험해서 배우는 사람도 없지만 가르치기도 힘들.	00:29:48~ 00:34:35	
11. 목공예와 목공의 차이		
- 창호 목공과 공예는 기계에서 차이가 많이 남.	00:34:36~ 00:36:11	
12. 명장이 되기까지의 어려움		
- 목공예 명장이 되려면 상장, 사회봉사 시간, 등등이 필요함. - 일본은 20년 이상하면 무조건 명장을 지정해준다고 함.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, 배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함. - 우리가 쓰는 나무는 대부분 수입. 우리나라 나무는 제재해서 파는 곳이 없음.	00:36:12~ 00:39:33	
13. 어린시절의 추억- 박정희 정권 시절 중심으로		
- 어릴 땐 산이 다 민둥산이었음.	00:39:34~ 00:43:13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무가 많이 심겨졌음. 		
<p>14. 정부 지원의 필요성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이걸 업으로 삼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음. - 목공예학원에서 취미로 배우는 사람은 많음. 	<p>00:43:15~ 00:45:29</p>	
<p>15. 송의목공예센터와 목공예마을에 대한 견해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공예센터는 현재 구청에서 민간 위탁을 맡긴 상황임. - 목공예거리는 도원동 쪽에 있다가 철길이 복복선 되면서 송의동으로 나오게 되었음. 	<p>00:45:30~ 00:51:32</p>	
<p>16. 목공예 마을에 대한 전망과 힘들었던 시기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손님들이 왔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음. - IMF 때 부도를 맞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해주기 위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음. 	<p>00:51:33~ 00:55:09</p>	
<p>17. 상감기법을 가구에 접목했던 시절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리나라 시장에 납품했던 것은 상감, 가구 부품(장롱 가운데 넣는 문양)이었음. - 상감 무늬가 들어간 건 처음에 이태리에서 수입을 했음. 그러다가 직접 했음. 	<p>00:55:10~ 01:00:29</p>	
<p>18. 하고 싶은 말씀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골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만들고 싶음. 그리고 개인전을 열고 싶은 마음. 	<p>1:00:29~ 01:05:40</p>	